연합노보

www.newsunion.co.kr

특보 2012.6.12 (화)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공병설·편집인 정성호.구정모

‘소통의 허리’ 대의원, 파업 90일을 돌아보다

“조합원간 이견 조율이 가장 힘들어”…

“이 정도 단결력이면 못할 거 없다”

23년만의 총파업을 맞아 누구보다 더 수고한 이들이 있다. 한 부서나 팀 내 조합원의 대표하는 대의원들이다. 이들은 파업상황을 일반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조합원의 의견을 쟁의대책위원회에 전하는 소통의 허리역할을 해야 했다.

파업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조합원 400여명이 ‘일심’으로 단결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노조가 중요한 국면을 맞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생각과 정서를 가감없이 전달한 덕분에 노조가 90일의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큰 오판을 하지 않도록 했다.

노보팀은 이에 대의원을 맡은 조합원들이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봤다. 파업 참여 · 비(非) 참여 조합원간, 조합 · 비조합원간, 연차의높고 낮은 조합원간 이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파업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매일같이 파업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대의원으로서 책임감이 파업기간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고, 조합원들과 소통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이견 조율 가장 어렵다”

90일째를 맞은 총파업 기간에 대의원은 쟁의대책위원회 · 대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조합원 의견을 수렴에 다시 집행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파업 초기에는 거의 매일 열리는 대의원회의 참석을 위해 조합원보다 한 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해야 했고 의견수렴이 필요한 순간에는 조합원 개인과 일일이 접촉해 중지를 모으는 등 눈에 띄지 않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인 만큼 이전에 대의원을 해 본 경험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TV 파견 박성민 대의원은 “다른 부서에서도 대의원을 해 봤는데 그때는 한 해 두세 번 열리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해 단협안 가결하는 일이 거의 전부였다”며 파업을 하면서 대의원의 진정한 역할이 뭔지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대의원 역할

2면에 계속 ☞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이란 없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12일 “일부에서 노조가 파업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파업 대오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 위원장은 “늘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노조가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심지어 노조가 거의 백기 드는 수준으로 파업을 끝낼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위원장은 “협상이란 깨질 수도 있고, 타결될 수도 있다. 협상이 깨지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 또 싸워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대오에 남아 흔들리지 않고 뭉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파업은 안 하는 것이 좋고, 한다 해도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낼 수는 없다”면서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대로 노조가 두손 두발 들고 백기 투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본사 1층 후문과 7층 사장실에서 파업 90일차 출근길 집회를 이어갔다.

오전 9시13분께 회사에 도착한 박정찬 사장은 건물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던 10여명의 조합원들을 잠시 바라보고서 아무말 없이 사장실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센터원 보안 요원들이 사장과 나란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피켓 시위를 벌이려던 모 조합원을 제지해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청계천에서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성곽 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며 우의를다졌다.

〈어느 파업노동자의 일기〉 이율 증권부 조합원

나는 마음 약한 겁쟁이였구나. 파업90일째를 달려오면서 새삼 깨달았다.

용기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비겁하지 않게 사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만약 일본강점기 때 태어났다면 친일파가 됐을 것이라고 농담하곤 했었는데, 진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다.

겁쟁이였기에, 너무 하기 싫었던 파업이 어느덧 일상이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선다. 지난 10년간 매일 신문 몇 단 때문에 덜덜 떨며 일희일비했던 것을 생각하면, 파업이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새삼 생각한다.

아침 볕이 좋아 땡땡이를 치고 조조영화를 보러 갈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겁쟁이는 파업일정 땡땡이 치기도 쉽지 않다.

오전 8시 50분. 만원 열차를 두 번 갈아타고 도착한 사장실 앞. 엘리베이터사이 공간에 등을 먼저 기대고 스르르 바닥에 앉았다가 사장 출근이 임박하면 일어선다. 오늘도 출근의 목적은 순식간에 달성된다. 사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장실까지 가는 데 드는 시간은 불과 30초. 이 30초를 위해 매일 아침 1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은 지옥 버스나 지옥철에서 60여분을 투자한다. 비율로 치면, 1대 1만2천이다.

이어지는 집회에서 공병설 위원장의말씀을 들으며 허무한 마음을 다독이고서 '연합뉴스는 파업 중입니다'라는 유인물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간다. 쭈뼛쭈뼛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계속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유인물을 줄 용기를 낸다.

어느덧 명동 한복판까지 왔다. 동료들과 피켓을 들고 한 줄로 서서 외친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9일째 파업 중인 연합뉴스 사원들입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간 통신사입니다.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공정보도로 언론의 향도가 되는 꿈입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마냥 기어들어 가던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 둘 모여 커지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듣는 이들이 많아졌다.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데 눈물이 핑 돈다. 대여섯 번을 목이 터지라 외치다 보니 유인물이 동났다. 어느덧 점심때. 냉면 한 그릇 먹으며 바람직한 협상의 방향에 대해 갑론을박 하다 헤어진다.

집에 갈까 하다가, 회사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책을 읽는다. 후배들이 삼삼오오 경제스터디를 만들었다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책을 읽다 보니, 그동안 썼던 기사들에 모순됐던 지점이 보인다. 부끄럽다.

겁쟁이라서, 게을러서 범했던 과오를 바로잡고 다시 태어나고자 시작한 파업 투쟁이다. 그런데 어느새 힘들다고 칭얼대는 자신을 발견한다. 금전적 결핍과, 무위의 괴로움, 불확실성에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은 것이다. 심지어 미래를 비관하거나 냉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업투쟁의 고통은 언론종사자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할 고통이다. 살면서 누구나 월급 풀칠을 떠나 정의를 위해 진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한 번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시대에 빚졌다.

비관과 냉소는 겁쟁이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말이 있다. 하루빨리 피난처를 벗어나 낙관주의자가 될 때다. 그래야, 이 싸움 승리로 끝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겁쟁이의 조그마한 용기와 낙관이다.

☞ 1면에 이어

을 무리 없이 해 나가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때때로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국제뉴스부 김세진 대의원은 "기획위원까지 합치면 부서인원이 60명 가까이 되는데 파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대의원으로서 중재하기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아래 연차간 서로 다른 의견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지역본부의 한 대의원은 "본부에서 연차가 낮은 편이다 보니 이견 조율이 가장 힘들고 특히 대오에서 이탈하려는 일부 선배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전했다.

대의원들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이외에 비참여 조합원, 비노조원과의 소통까지 맡고 있어 늘 지금의 파업 상황을 어떻게 공유할 지 고민이 많다.

산업부 임형섭 대의원은 "비파업 조합원 설득이 잘 안되는데 설득해야 할 때, 대오 안에서 설득력 있었던 이야기도 비파원 조합원 앞에서 하면 설득이 잘 안 돼 평행선을 긋는 기분이 든다"고 중간 역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늦잠 못 자고 조합원 출석률 늘 고민"

대의원들은 파업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수이므로 파업 프로그램에 100% 출석하는 것은 기본이다. 조합원들의 출석률도 늘 신경쓰인다.

IT개발부 성의경 대의원은 "파업하면 늦잠도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늦잠을 자더라도 대의원이라서 한두 시간 일찍 나와야 하더라"며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1주일 입원했는데 대의원이 번거롭고 수고스러움이 있는 걸 아니까 후배한테 부탁하기 미안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임형섭 대의원은 "간혹 일정을 째고(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도 대의원이라 빠지지 못한다"면서도 "대의원 활동이 재미있기도 하고 매일 아침 일정에 참석할 동기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석체크할 때 우리 부서 사람들이 너무 없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며 "연락 돌릴 때 전화를 안받는 게 가장 서운한데 발신번호가 남으면 꼭 다시 전화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참여 조합원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정치부 김범현 대의원은 "정치부는 팀을 이뤄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비참여 선배와 참여 후배간에 감정적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지금은 선후배 사이에 감정을 건드리거나 입장을 폄하하는 일이 없다"며 "파업이 끝나면 서로 마찰 없이 융화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다국어뉴스부 오정훈 대의원은 "비참여가 많아서 소통이 어렵기도 했지만 서로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위원장 주요 발언과 상황설명을 항상 전달했다"고 대의원으로서 활동을 회고했다.

"이 정도 단결력이면 못할 거 없다"

대의원들은 회사가 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피신청인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기억했다.

산업부 임형섭 조합원은 "가처분 대상이 됐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까짓거 20만원 내지 뭐 하는생각도 있었다"며 "대의원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나한테까지 가처분 서류를 보낸 걸 보고 내가 뭐 큰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IT개발부 성의경 대의원은 "살다보니 이런 일도 당해보는구나 싶었고 혹시 등기를 받으면 문제 될까 봐 온 가족이 모두 처가에서 2주간 지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대의원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감동하거나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비제작부서의 한 대의원은 "파업에 참여 중인 한 부서 선배가 생계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집회에 안 나오고 있었는데 12시간 일해서 6~7만원 받을 바에야 노조에 이야기해서 잠시 복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한 선배와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선배가 '내가 쟁대위와 선후배를 믿고 2개월 이상 힘들지만 파업하는 데 여기서 업무 복귀하면 이제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힘들지만 이렇게라도버텨보겠다'고 말해서 뭉클했다"고 고마워했다.

이어 "90일간 파업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 회사생활 하면서 이 정도 단결력이면 같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IT운영부 이석규 조합원은 "부원들이 건강해야 노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모두 건강하고 지금처럼 대오가 유지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파업 비참여 조합원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본부의 한 대의원은 "집회에 참여하려고 서울을 오가면서 본부 선후배들과 회사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이 보람이었다"며 "다만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과 나머지 조합원 사이에 생긴 불신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보인다"고 내다봤다.